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의 치열한 논쟁

- 1820년대 이후 50년대까지 약 40년간의 알렉산더 캠벨의 삶은 개혁(환원)운동을 지켜내기 위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었다. 그것은 곧 칼뱅주의와의 싸움이었다.
- 당시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칼뱅주의였다. 그들이 침례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입교를 위한 것이었고, 신자의 침례나 세례의 경우는 반드시 회심체험이 우선되어야 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는 회심체험의 증거를 검증 받고서야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은 구도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지체 없이 베풀었다.
- 당시 침례교와 장로교는 성령의 조명론과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직접 사역을 강조하였다. 결국 알렉산더 캠벨이 관여했던 침례에 관한 토론은 이 두 가지 쟁점 곧 침례의 목적과 회심 중 성령의 사역이었다.

1800년대의 논쟁들은 모두 미국의 서부개척지에서 일어났다.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주

Alexander Campbell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Mount-Pleasant, on the 19th and 20th June, 1820,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gation; To Which Is Added a Large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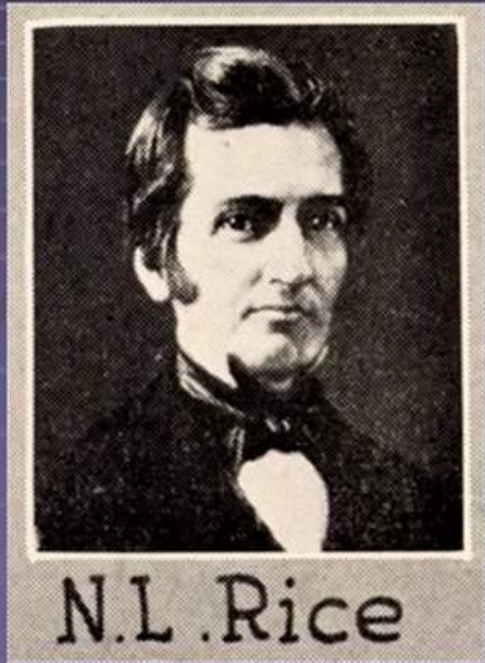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the Rev. W. L. Maccalla,
a Presbyterian Teacher,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Washington, Ky. Commencing
On the 15Th and Terminating
On the 21St Oct. 1823,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 -
Primary Source Edition

William Latta McCalla, Alexander Cam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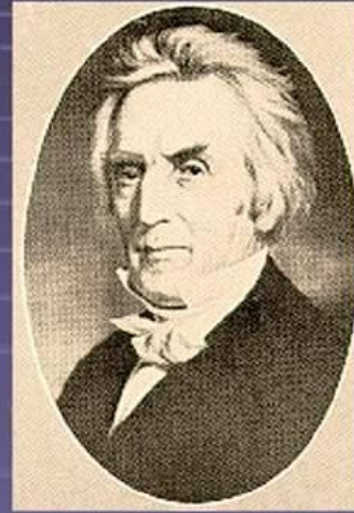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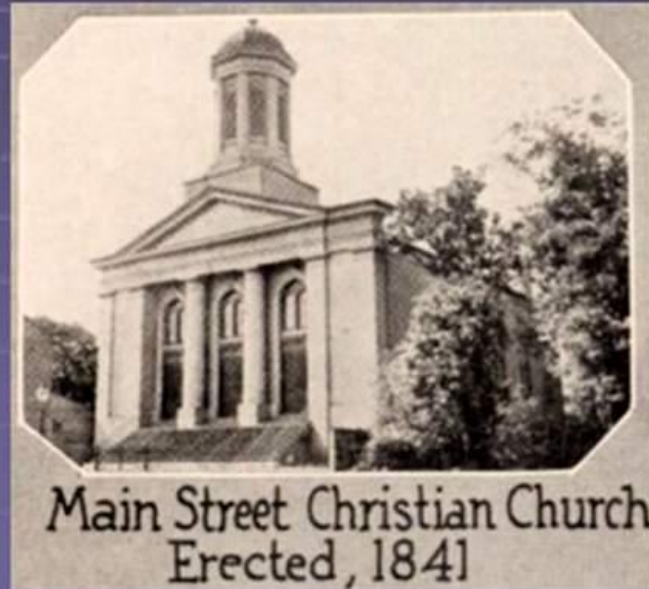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에 관한 토론

- 존 워커 (1820.06.19-20,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
- 윌리엄 맥칼라 (1823.10.15-21, 켄터키 주 워싱턴)

1843 Campbell-Rice Debate, Campbell's Last Public Debate Lasted Sixteen Days



1843 - 36
Years Old



1843 - 55
Years Ol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Also, On the Character of Spiritual
Influence in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nd On the Expediency
and Tendency of Ecclesiasti



NATHAN LEWIS RICE, MARCUS TULLIUS
CICERO GOULD, ALEXANDER CAMPBELL, A
EUCLID DRAPIER

알렉산더 캠벨 대對 나단 라이스 공개토론이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속기된 공개토론 내용은 책(902쪽)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캠벨은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eis + 대격을 for, unto, so that, in order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

“βαπτισθήτω...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Scriptural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American Standard Version - "unto the remission of sins."

New King James Vers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New Internation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Revised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so that your sins may be forgive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World English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Bible in Basic English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od News Bible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God's Word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Young's Literal Translation - "to remission of sins."

Modern King James Version - "to remission of sins."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English Standard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 "to remission of sins."

New English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ew Living Translat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Today's English Version -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The Douay-Rheims Bible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Hebrew Names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Webster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Wesley's New Testament - "to the remission of sins."

Third Millennium Bible - "for the remission of sins."

The Darby Translation - "for the remission of sins."

J. B. Philips Translation - "so that you may have your sins forgiven."

New American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mplifie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and release from your sins."

Worldwide English Bible - "Your wrong ways will be forgiven you."

Weymouth Bible - "with a view 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Revised King James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sins."

Modern Literal Version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Common Version New Testament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Interlinear Greek New Testament - "for remission of sins."

Living Oracles - "in order to the remission of sins."

Montgomery New Testament -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The Emphasized Bible - "i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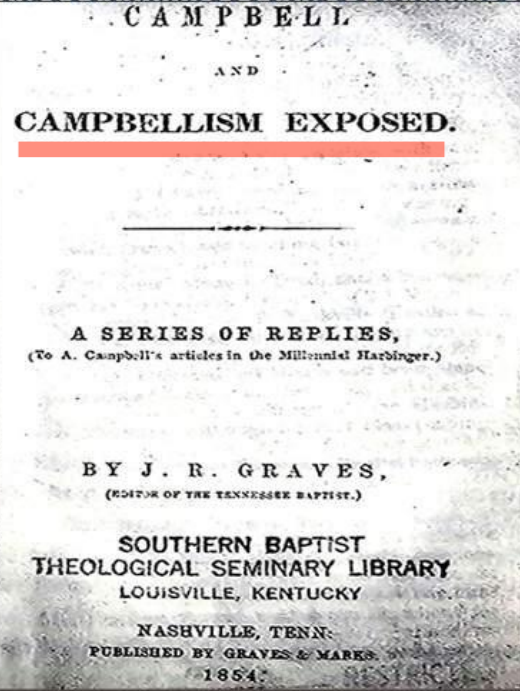
Covenant Edition New Testament - "to cancel your sins."

Christian Standard Bible -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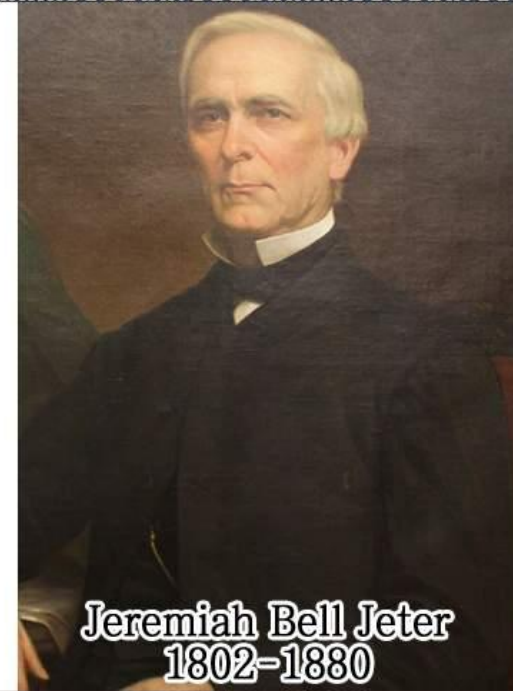
*헬라이어 구문에서 eis+대격을 거의 모든 언어의 성경들에서 “위하여”(for, 목적)로 번역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한국어 성경들에서는 유일하게 말씀보존학회가 출판한 <한글킹>과 <표준킹>에서만 “인하여”(because of, 결과)로 번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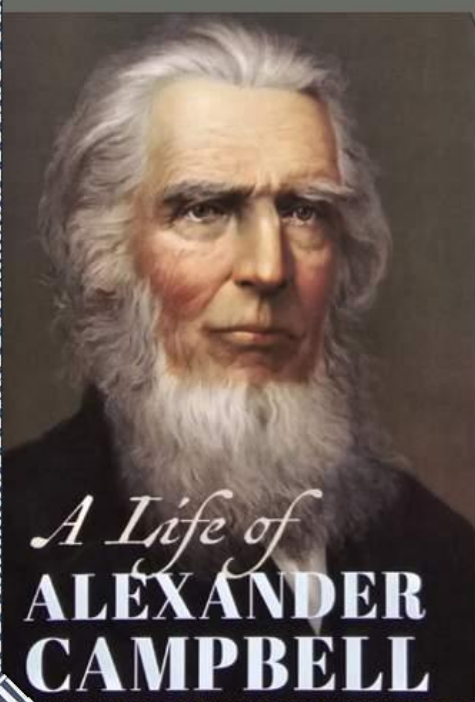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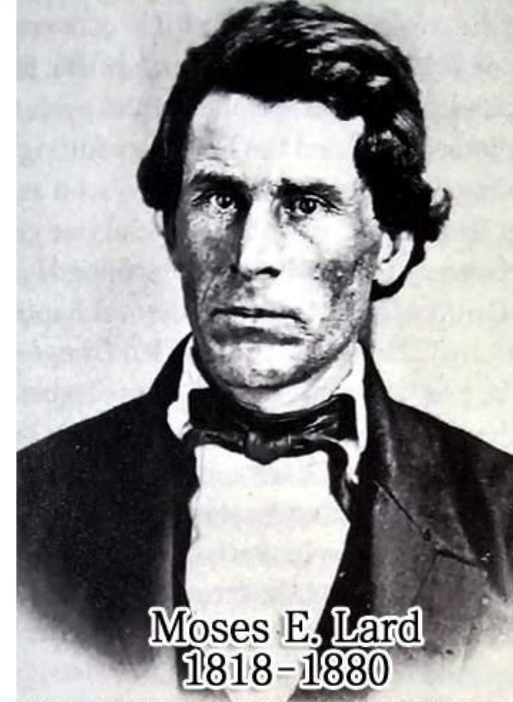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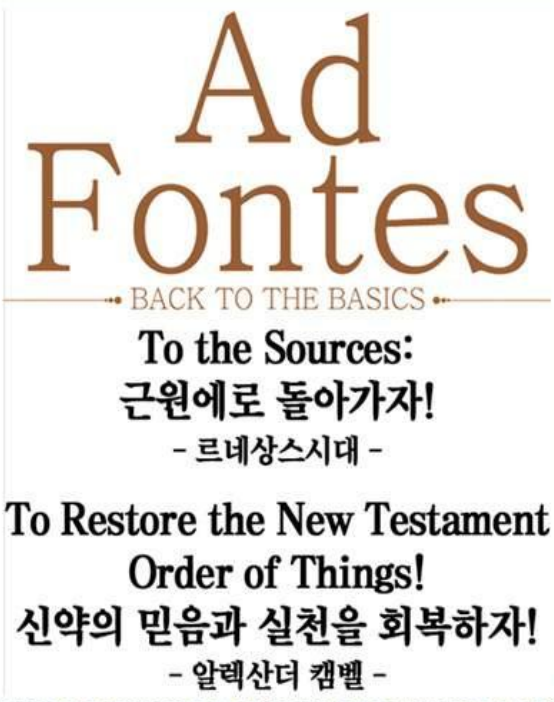
침례교인들
대
알렉산더
캠벨과
개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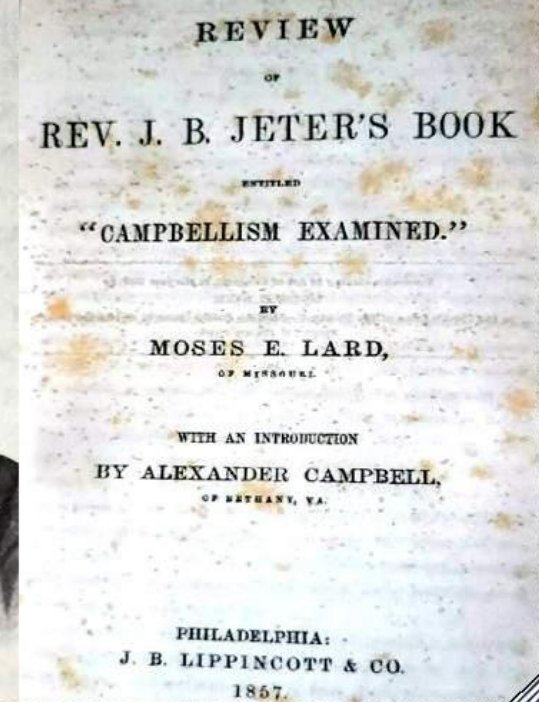
Jeremiah Bell Jeter
1802-1880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Moses E. Lard
1818-1880



- 1860년 그레이브스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들과 실행에 관한 논의에서 캠벨의 개혁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1812년 (*6월12일 버팔로 개울)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침례가 죄 사함과 심령에 중생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이제 침례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결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초기 목회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순한 샘에서 순수한 시냇물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캠벨주의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고 침례를 베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교파 전체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J. R. Graves, The Trilemma; or, Death by Three Horns (Nashville: Southwestern Publishing House, 1860), 195-96.]

-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Farewell. B. W. Stone*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Barton W. Stone(1772-1844)의 자필 사인 "Farewell"

- 월터 스콧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누가 먼저 공개적으로 반포했는가를 놓고 캠벨과 우위권을 다투고,
- '회복된 복음'이란 주제로 캠벨과 다투었다.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The Lord bless Your Labours
Walter Scott*

Walter Scott(1796-1861)의 자필 사인
"The Lord bless your labours."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의 핵심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구원 받은 자)이 있는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란 인식 없이 베풀거나 받은 침례가 유효한가?
- ‘죄 사함을 위한 침례’란 인식 없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재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알렉산더 캠벨의 루넨버그 서신 논쟁

시간 2025년 6월 15일 오후 5시

장소 따름과누림 교회(류장열 목사)(9호선 신방화역 6번출구)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마곡WE타워 712호

발표 조동호 박사

회장 조재형 박사

논찬 전인수 박사

총무 박주필 박사

*참석자에게 자료와 식사 제공합니다. 주차 가능합니다. 문의: 010 - 5063 - 8738



환원운동연구회
Restoration Movement
Studies of Korea

방어와 갈등 Defense and Conflict

알렉산더 캠벨 대(對) 존 토마스:
John Thomas and the Lunenburg
Letter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John Thomas, M. D.

John Thomas(1805-1871)의 자필 사인
의사, Christadelphians의 창시자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을 1848년 미국에서 창립한 존 토마스(John Thomas, 1805–1871)는 영국인 의사로서 알렉산더 캠벨의 교회 개혁(환원)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 존 토마스는 1832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약 1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한 후 리치먼드로 이사하였고, 1834년 5월에 <사도의 대변자>(Apostolic Advocate)를 창간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은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 1837년 6월호에 “Letters to England-No. 1”이란 제목의 기사(記事)를 게재하였는데, 캠벨이 쓴 그 글에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라는 문구가 있었다.

- 존 토마스와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의 한 여성이 개신교의 타 교단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뉘앙스의 이 캠벨의 문구를 문제 삼아 소위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논쟁은 1837년부터 1840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 **존 토마스 그룹이 주장한 논쟁의 핵심**은 신자의 침수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것과 그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는 것이며, 만일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 논쟁의 결과로 알렉산더 캠벨의 환원운동권의 교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존 토마스는 1844년 리치몬드 교회를 캠벨 운동에서 철수하여 1848년 ‘**그리스도 안의 형제회**’ (Brethren in Christ)를 결성하였고, 1847년에 **재침례**를 받았다. 토마스과 연계된 그룹들은 Believers, Baptized Believers, the Royal Association of Believers, Baptized Believers in the Kingdom of God, Nazarines (or Nazarenes), The Antipas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이란 교파명은 남북전쟁(1861-65) 당시인 1864년에 미국과 미국 남부동맹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분’(conscientious objector status)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이 교파를 현체제의 ‘그리스도아델피안’으로 형성시킨 인물은 존 토마스의 성경 해석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로버트 로버츠(Robert Roberts, 1839-1898)였다.
- 로버트 로버츠는 1864년에 <다가오는 시대의 대사>(The Ambassador of the Coming Age)지를 창간하였고, 존 토마스의 권유로 1864년에 <그리스도아델피안>(The Christadelphian)지로 잡지명을 변경하였으며, 1871년 존 토마스의 사망이후 교단발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국 바스에 소재한
그리스도아델피안 예배당
Christadelphian Hall
in Bath, England



미국 뉴욕 주 버팔로에
소재한
그리스도아델피안 예배당
Christadelphian Hall
in Buffalo, NY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은 1848년 미국에서 존 토마스(John Thomas, 1805–1871, 의사)에 의해 창설된 기독교 내 회복(환원)주의, 유니테리언 계열의 종교단체이다.
-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s)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adelphoi en Cristou”(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에서 유래했다.
- 이 단체는 사도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성경의 영감설과 무오류설,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침수세례,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뤄질 왕국의 회복을 믿는다.
- 이 교파에는 그들의 신념을 유지시킬 중앙조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신앙 선언문(예: 버밍엄 개정 신앙 선언문)에는 수용해야 할 교리와 거부해야 할 교리 35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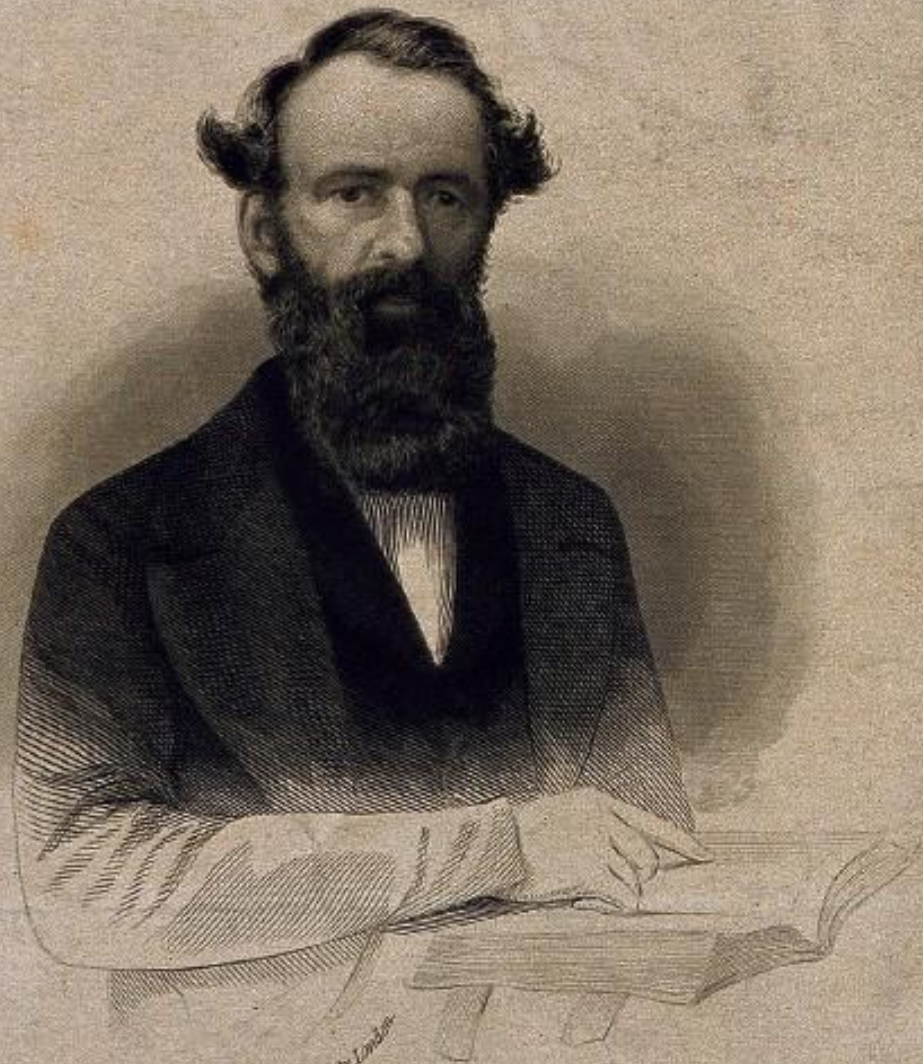
- 1세기 교회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주의자들이므로 성경의 영감설과 무오류설을 믿는다.
- 하나님을 창조주와 참된 신자들의 아버지로 믿는다.
- 예수님의 선재설을 부정하며, **삼위일체설을 거부**한다.
- **성령의 인성을 부정**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는다(세대주의 또는 Messianic Jews의 신념과 동일).
- 마귀는 죄와 인간본성에, 사탄은 적대자에 대한 표현으로 보며, 지옥을 영원한 죽음과 그 상태로 본다. 따라서 **마귀, 사탄, 영혼 불멸,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다.**

- 신자의 침수세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받아드린다. 신자의 침례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고 본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침수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침례를 받도록 요구한다.
-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결과로 온다고 믿는다. 죽음은 필연적이고 잠자는 것이므로 낙원에 올라가지 않으며 무(無)의 상태에 있다가 재림 후 불멸의 선물을 받고 회복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 노릇 한다고 믿는다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념과 동일).
- 목사와 같은 교직 제도를 두지 않는다.

- 예배당을 일반적으로 “hall”이라고 부르며, 약 120여 개국에 55,000여명의 교인이 있다. 대부분의 교인은 영국,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및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 삼위일체설, 영혼불멸설 및 영원한 지옥 부정, soul sleep, 예수님의 인성 강조 등의 교리는 ‘여호와와의 증인’과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신들을 승리주의와 원시교회 전승설에 입각하여 참 교회 혹은 본래적 교회를 복원한 그룹으로 주장하였다.
- 회중들은 종종 자신들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ecclesias)라고 부른다. 이 말은 “교회”라는 뜻이며 신자들의 회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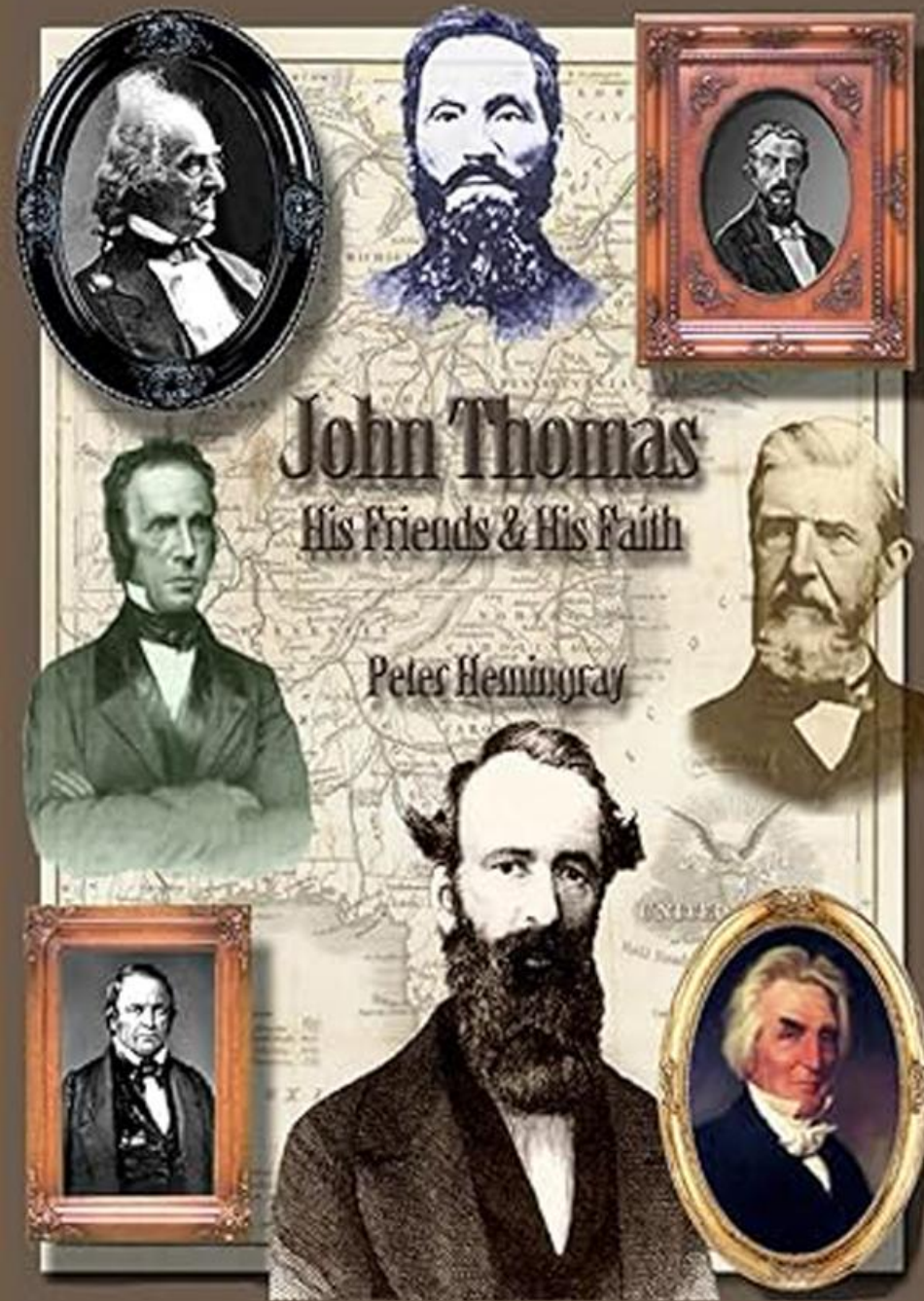
- 신념과 뿌리를 공유하는 그룹에는 the Nazarene Fellowship, the Ecclesia of Christ, the Remnant of Christ's Ecclesia, the Apostolic Fellowship of Christ, the Apostolic Ecclesia, The Church of God of the Abrahamic Faith가 있다.
- 그리스도아델피안은 교회가 회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 초대교회의 관례를 따라 가정교회(롬 16:5, 고전 16:19, 골 4:15) 형태를 유지하며 집, 임대 홀 또는 자체 홀에서 모임을 갖는다.
-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갖지 않으며, 개별 회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그들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격려 받는다.
- 보수를 받는 성직자를 두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Glad Tidings(1884년 이후)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The Christadelphian(1864년 이후), Milestones 등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 주요 서적으로 Bible Companion, Elpis Israel, Eureka, Christendom Astray 등이 있다.
- 그리스도아델피안은 화려한 건물, 성직자 또는 성상과 같은 장식이 없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강한 가족 의식과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



Engr. by THELHS, Jewin, St. City, London

John Thomas, M.D.



Elpis Israel

John Th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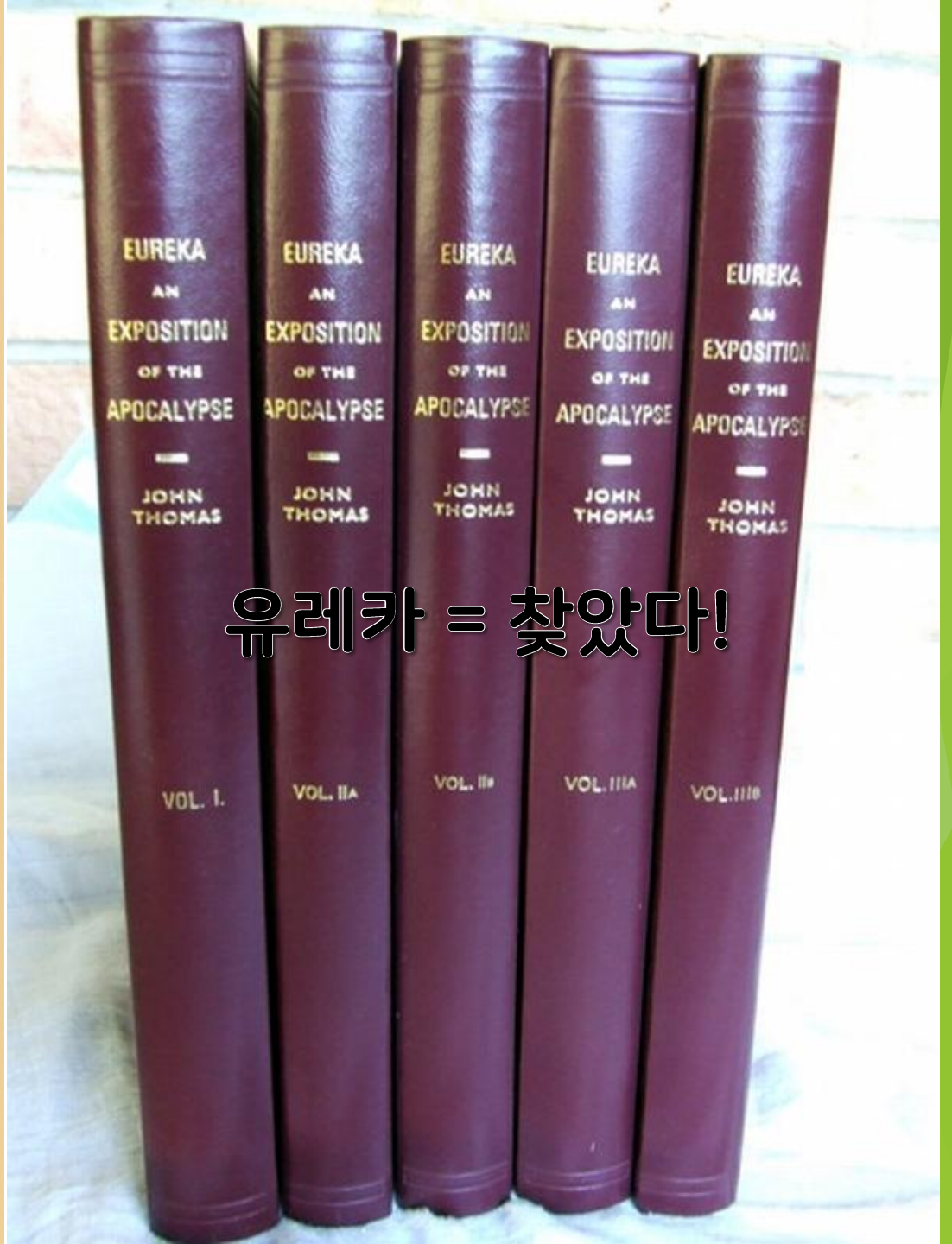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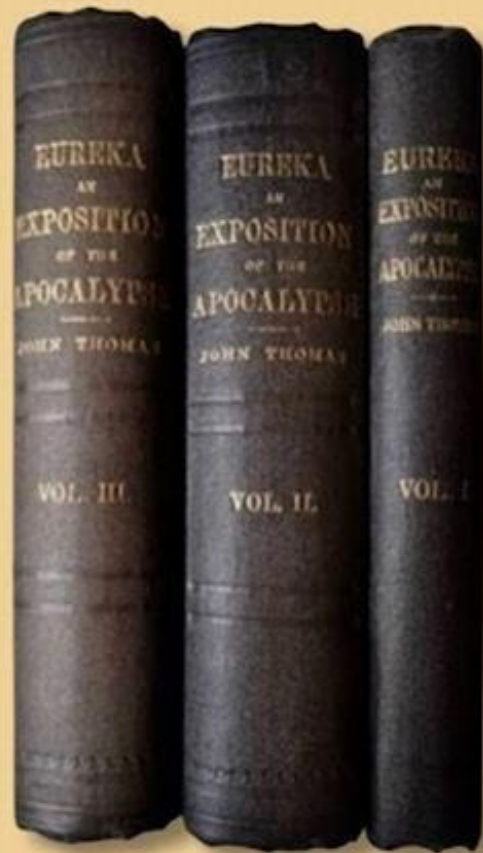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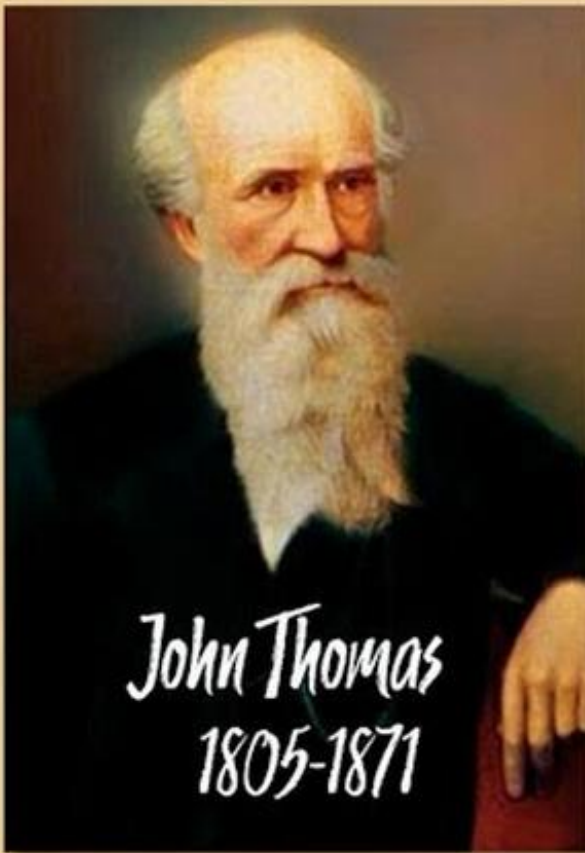
The Perfect Library

ELPIS ISRAEL

"The Hope of Isr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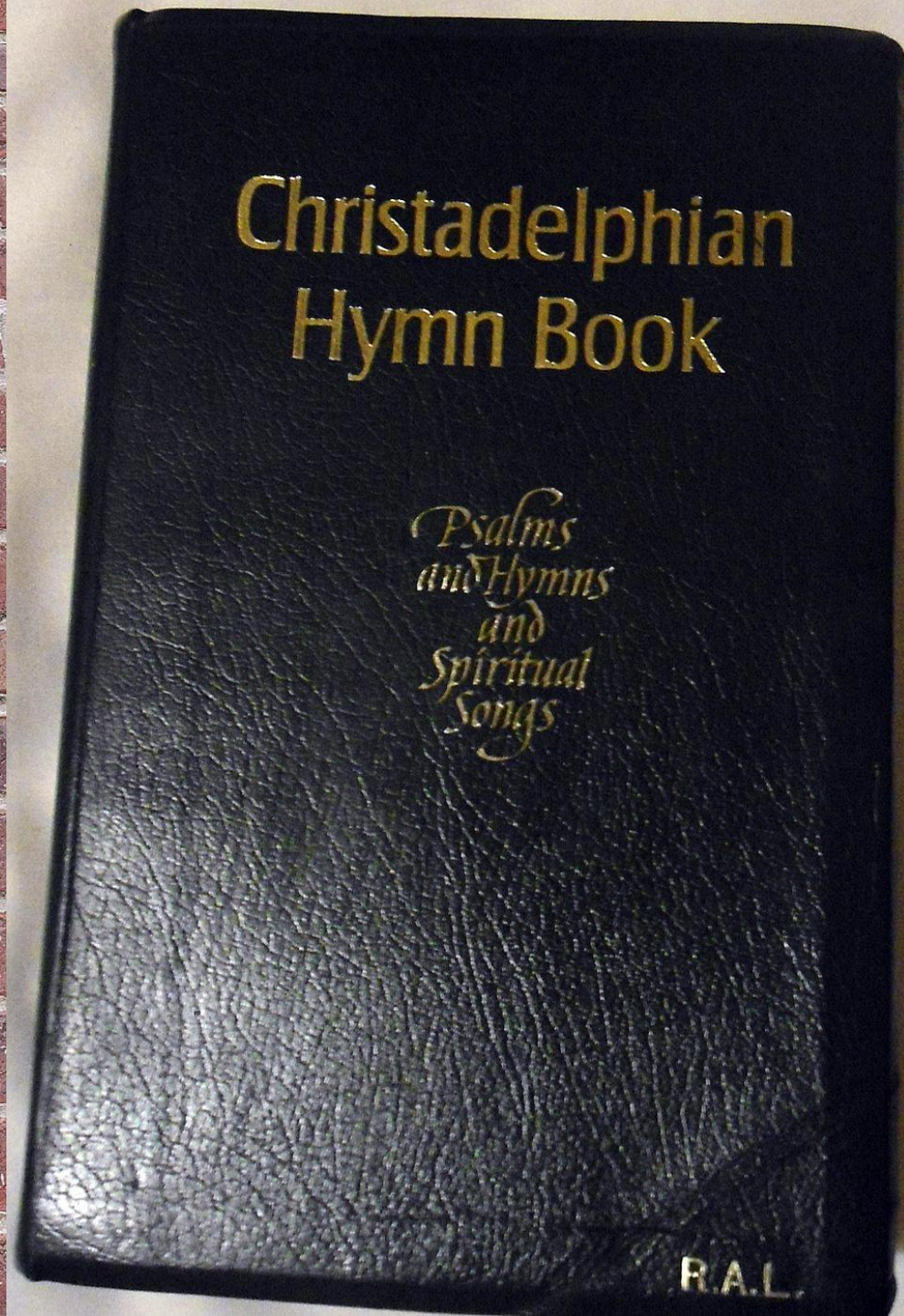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희망

Original Edition By
John Thomas



유레카 = 찾았다!

An audio reading of all volumes of
"EUREKA"
An exposition of the APOCALYPSE





DR. THOMAS AGED 64 — THIRD VISIT TO
BRITAIN



DR. THOMAS' GRAVE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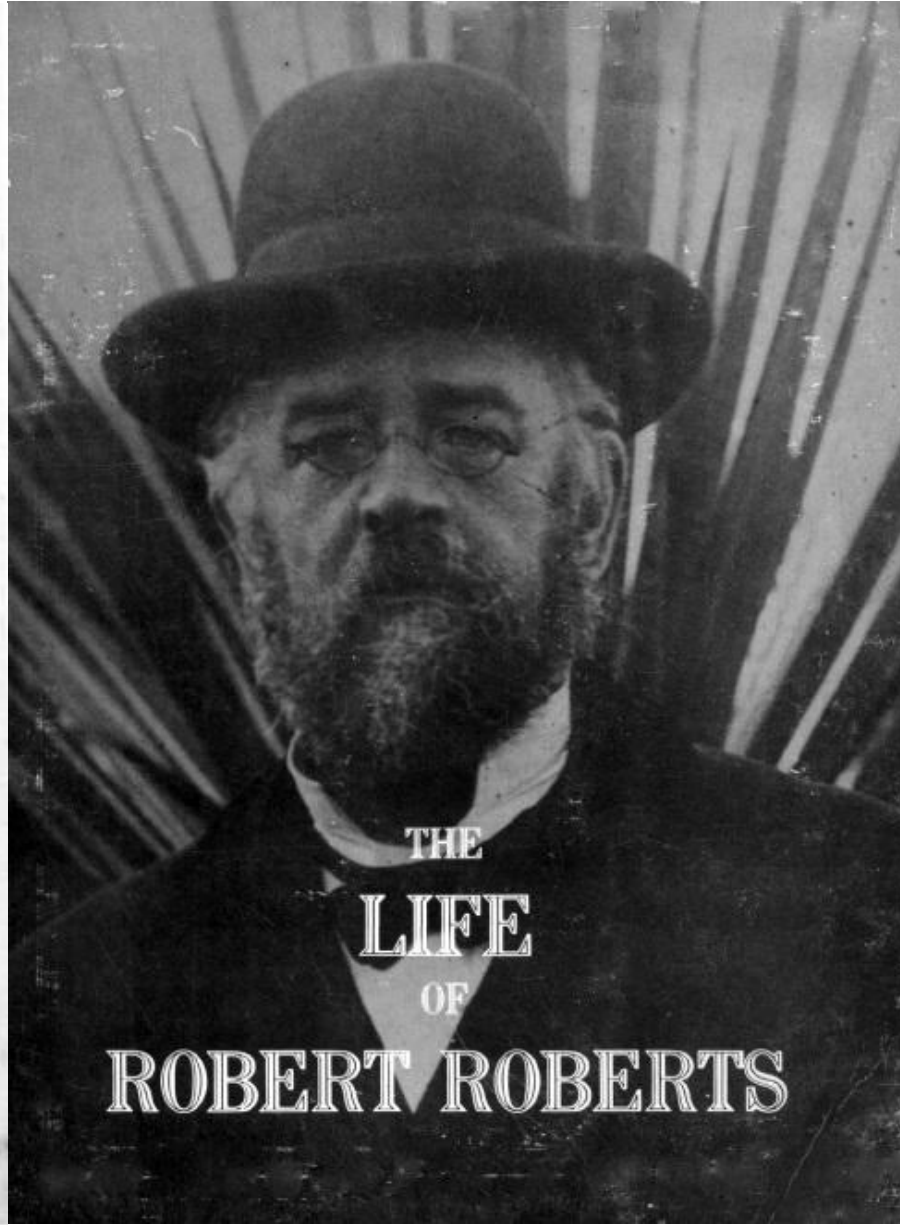


"JOHN SMITH" — FICTITIOUS AUTHOR OF
"ENGLAND'S RUIN"



ROBERT ROBERTS — EDITOR OF "THE
CHRISTADELPHIAN"

로버트 로버츠 (Robert Roberts, 1839-1898)



ROBERT ROBERTS

로버트 로버츠 (Robert Roberts, 1839-1898)



**Green-Wood Cemetery
Greenwood Heights, Kings
County, New York, USA**



**BRO. ROBERTS' GRAVE ALONGSIDE OF
BROTHER AND SISTER THOMAS'**

Here lies
Robert Roberts
of Birmingham England
Editor of the
Christadelphian, Author
of Christendom Astray
and many other works
who for forty years in the
front ranks of the
Christadelphians
aided and continued the work
begun by Dr. Thomas by whose
side he now sleeps in Jesus.
Born April 8th, 1839
Died September 23rd, 1898

For Robert Roberts the Kingdom was here - he had spent his life busily engaged in the Master's service. His days were not just a story that is told, but behind him was an Ecclesial world consolidated through his labours and the much better off with the wealth of writing he had spent his days so busily engaged in. Here lay side by side two stalwart labourers who had sacrificed all human interests on the altar of their faith. Robert Roberts now lay in hope, awaiting his greatest longing — the Kingdom.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

- 알렉산더 캠벨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 1837년 6월호 기사, “Letters to England-No. 1”에서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존 토마스와의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의 한 여성 (훗날 연구자에 의해서 루이사 앤더슨/Luisa Anderson으로 밝혀짐)이 “그리스도인 (Christian)의 이름이 오로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장사된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며 ‘미침수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이에 알렉산더 캠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표준을 정할 수 없으며, 침례조차도 정할 수 없다…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의 진실 되고 성서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 침수자 신앙인들에게 주어졌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루넨버그의 자매는 물론 그들(존 토마스과 그 추종자들) 과도 기꺼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약성경의 모든 진보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유대인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제도의 최상의 가치와 우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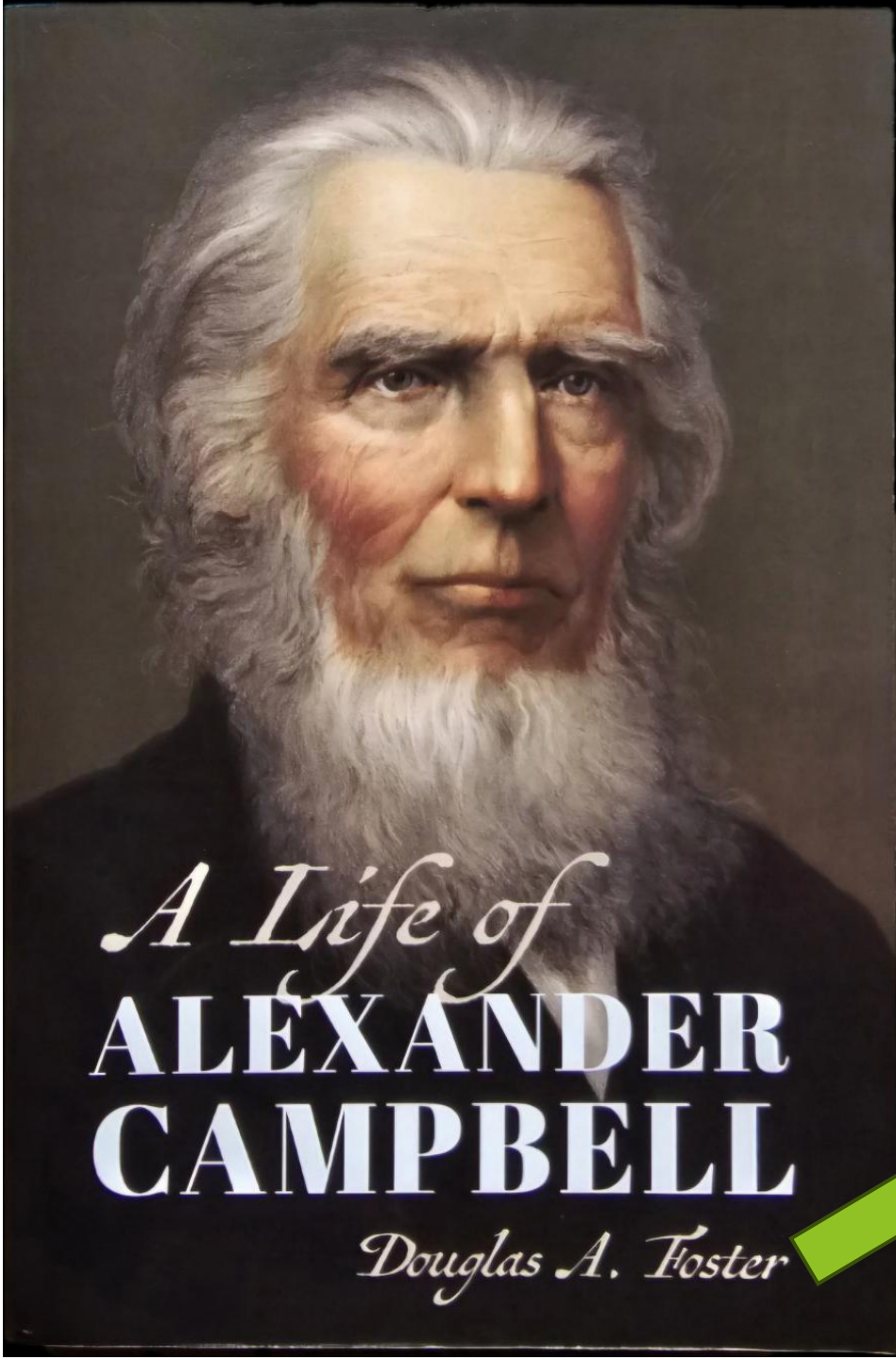
-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향, 상태, 그리고 특성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지성적으로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만큼 칭의나 죄사함에 관한 확신을 완전하게 갖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 그러므로 **침례 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구원을 즐기는 것만큼, 비록 다른 모든 것은 동등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결코 즐길 수 없다.**”

캠벨이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에서 밝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네 가지 중요성

- 신약시대 특히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자 (professor)를 의미한다... 정치집단이나 철학의 학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에도 교파들이 있다.

캠벨이 루넨버그(Lunenburg) 서신 논쟁에서 밝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네 가지 중요성

-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고백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 속에 장사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많은 사람들의 판단대로, 일부는 신앙고백을 바로 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잘못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Douglas A. Foster



제11장 존 토마스와의 루넨버그 서신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1837년 9월에 시작된 **루넨버그 서신 논쟁**은 3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으며, 이 모든 것이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버지니아 주 루넨버그에 사는 한 “양심적인 자매”**가 캠벨에게 보낸 서신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는 캠벨이 1837년 8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영국환원운동의 지도자이자 <영국판 새천년시대의 선구자>(British Millennial Harbinger)지의 편집자인 **제임스 월리스 (James Wallis)**에게 쓴 **논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윌리스는 캠벨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단체, 노예제 반대 단체, 금주 단체 같은 조직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지 여부를 물었다.
- 캠벨은 미국에서 개혁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그 이유가 그 단체들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포함되기 때문이고, 그 단체들은 교회가 행하고 있을 일을 행하는 인위적 기관들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캠벨은 계속해서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우리 교회들의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캠벨은 “나는 모든 개신교 교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과 우리의 상대적인 지식과 기회에 따라 우리 자신만큼 모범적인 것을 발견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는 윌리스에게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선한 양심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Letters to England No. 1,” Millennial Harbinger, June 1837, 272, 274.]
- 루넨버그에서 서신을 보낸 여성은 캠벨의 진술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글쓴이는 버지니아 교회 지도자 앨버트 앤더슨 (Albert Anderson)의 아내인 루이사 앤더슨 (Luisa Anderson)이었다.]

- 두 사람 모두 존 토마스(John Thomas)의 지지자였다. 그녀는 캠벨이 “모든 개신교 교파들을 그리스도인들로”(the Protestant parties as Christians) 인정한 것에 받은 충격을 피력한 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아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속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장사된 자들에게 속합니까?” [“Any Christians between Protestant Parties”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7, 411.]

- 그해에 캠벨은 여러 논쟁들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4월에 만인구원론자 돌퍼스 스킨너(Dolphus Skinner)와 서면 토론을 시작하였고, 1월에는 가톨릭주교 존 뱍티스트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의 토론내용을 출판하는 일로 세부 사항을 놓고 그와 다투고 있었다.
- 또 캠벨은 자신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토마스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지도자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다. 토마스는 캠벨이 그 토론에서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캠벨은 갈등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심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관해 침례교 목사 사무엘 W. 린드(Samuel W. Lynd)와 논쟁을 펼쳤고, 자신의 새 번역이 비삼위일체적이라고 비난한 두 개의 침례교 논문과도 논쟁 중에 있었다.

- 토마스는 **인간의 영혼이 살아 있는 육체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의 존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사후에 부활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혼이 잠자는” (soul sleep)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 게다가 토마스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가르치려는 열정에서 개혁(환원)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침례교인들에게 재침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 **캠벨은 토마스의 재침례에 관한 입장, 영혼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 부활에 대한 견해를 비난하였다.** 논쟁은 184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1844년 토마스가 리치몬드 교회를 캠벨 운동에서 철수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아델피안’ (Christadelphians)으로 알려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회’ (Brethren in Christ)를 결성하면서 마침내 단절되었다.

- 캠벨은 루넨버그 서신에 대한 답변을, 만약 개신교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가톨릭교인, 유대교인, 튀르키예인, 이교도 중에도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명제로 시작하였다.
- 그것은 수 세기 동안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자신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캠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가 확립된 이래로 자신이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정의를 내렸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의 분량대로 범사에 순종하는 모든 자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1.]
- 그런 다음 캠벨은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의도적인 무지를 정직한 오해와 예리하게 구별하였다.

- 침례에 대해 착각한 많은 사람들(미침수자들)은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하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해하는 한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 하는 것조차도, 어떤 한 가지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품성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유아시기에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약식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로 간주한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

-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라는 중요한 행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궁극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
... 침수세례를 받은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명확하고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 만일 그가 **유아기에 약식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교 성경에 더 지적이고, 영성에 더 밝으며, 주님께 더 헌신적인” 사람과 침수세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동의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우선권을 드림에 있어서 잠시도 망설일 수 없다”고 하였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412-14.]

- ...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의 친밀한 친절과 동정심 및 형편이 허락하는 한 활동적인 자선에 한계를 모르며, 그리스도인 집회에 결단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적 경건과 헌신이 입증되며, 자신의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성경을 자신의 항구적인 동반자로 삼는 사람을 ... **바울이 자신이 만들지 아니한 한 체계(할례)를 자랑한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침수세례를 받은(자랑하는)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여, 그의 무할례나 무침례가 그 사람에게서는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왕(하나님)의 법들을 범하거나 무시하는 당신을 그가(무침례자가)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65.]

- 캠벨은 “양심적인 자매”가 보낸 서신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그녀는 존 토마스의 지지자였다. 토마스는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침수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조차도, 침례 주례자와 피침수자가 죄사함을 위한 침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밖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캠벨은 버지니아 주 동부 소재의 자신의 개혁교회들에서 토마스의 지지자들이 다른 교파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총체적이고 부당한 모욕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에 속이 뒤집어졌다. [“Any Christians among the Sects?,” 566; “Extra, No. I. - New Series,” Millennial Harbinger, December 1837, 580, 588.]

- 존 토마스와의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에는 **캠벨의 개혁운동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은 운동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토론은 1839년 5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실린 **조지아 주 엘버트 카운티의 T. W. 러커(T. W. Rucker)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 러커는 캠벨에게 **교회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간청**하였다.[T. W. Rucker, “News from the Churches,” Millennial Harbinger, May 1839, 236.]
- 캠벨은 8월에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s), 개혁가(Reformers), 캠벨파(Campbellites)를 포함하여 그동안 사용되었던 호칭들을 나열하고 평가하면서 답변을 시작하였다.

- 캠벨은 오직 두 가지 명칭, 곧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적이라고 결론지었다. [“Our Name: Disciples, Christians, Reformers, Campbellites, Millennial Harbinger, August 1839, 337-39.]
- 9월에 캠벨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용어들 중에서 네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좋다고 제안하였다.
- 첫째, “제자들”이 오순절 날 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사용된 더 오래된 용어인 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불린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 둘째, 그것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나 제자에 근접하기보다 “그리스도인 국가”와 같은 국가적 명칭에 더 근접한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에서 단지 두 번만 쓰였고, 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안디옥의 주민들과 헤롯 아그립바의 입을 통해서만 쓰인 반면에 “제자들”은 30회 이상 쓰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가장 흔하게 사용한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 넷째, 캠벨은 자신의 개혁운동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유니테리언파(Unitarians)와 아리우스파(Arians)로 착각할 것을 우려하였다.
- 유니테리언파와 아리우스파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행하지 않고 매 주일 주의 만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른 어떤 그룹도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Our Name,” Millennial Harbinger, September 1839, 401-3.]
- 이것에 대해 부친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월터 스콧(Walter Scott)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캠벨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몇 년 전 그들 각각의 운동들(역자 주: 캠벨의 개혁운동과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에 속한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합을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 **스톤은** 캠벨이 거론한 “제자들”을 선호하는 네 번째 이유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느꼈다.
- 스톤은 “유니테리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자는 분명히 아니었다. 스톤은 침례를 베풀 때, 캠벨만큼 죄 사함을 위한 침례 교리를 믿었지만, “나는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주노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스톤은 당신(캠벨)이 교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도 같은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 목적을 위해 침수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스톤은** 캠벨이, 그가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알려진 새로운 교회(교파)를 만들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캠벨에게 해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압박하였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당신이 또 다른 하나의 교파를 세우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 삼위일체론자들과 협력하여 유니테리언들에 대항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히 성경만을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화 하려고 계획하지 않기를... 경건한 신자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교제에 빗장을 지르지 않기를... 형제님, 꼭 제게 통지해주십시오.” [Barton W. Stone, “Communication,” Millennial Harbinger, January 1840, 21-22.]

- 1837-1840년의 사건들에서 캠벨이 보여준 신학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캠벨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게 했다. 캠벨이 때로는 “경건한 미침수자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던 반면, 다른 때에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캠벨의 모든 진술들은 당시 그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한 것이었지, 총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압박에 굴복하여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캠벨은 “한 주님, 한 믿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와 합하는 한 침수세례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되고 충성스러운 모든 친구들의 의무”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이후 1,200년간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는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 곧 히브리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의 관행이었다.”고 했다. [“Union,” Millennial Harbinger, November 1840, 486.]

- 또 캠벨은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1851) 끝부분에 실은 교리문답 126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유아들에게 약식세례를 베풀거나 유아기에 세례를 베풀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캠벨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인위적인 전통들”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유아에게 베푸는 약식세례의 효과에 관한 128번에 대한 답변에서 캠벨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 그것의 정확성을 의심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대조하였다. “전자는 단순한 실수이고 후자는 고의적인 범법이다.”

- 그러나 캠벨은 129번에서 진리에 접근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모두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참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그는 131번에서 단언하였다.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Bethany, VA, 1851), 433-34.]
- 이 논쟁의 결과로 알렉산더 캠벨의 환원운동권의 교회들, 특히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이후로도 재침례논쟁은 Churches of Christ에서 몇 차례 더 있었다.
- 1890년대에 발생한 재침례논쟁은 침례교회에서 받은 침례가 유효한가라는 것이었다. 존 토마스(John Thomas)의 견해를 채택한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와 <확고한 터전>(Firm Foundation, 1884-2010)은 무효로 보고 재침례를 요구했고,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와 <복음 옹호자>(Gospel Advocate, 1855-현재)는 유효성을 인정하여 재침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 이 논쟁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갈라서게 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오스틴 맥게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침례를 받아야 옳은 침례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베푼 침례까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침례를 주장하였다.

- **데이비드 립스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상관하지 않았고, 재침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단, 침례교회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구원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침례라면, 그것이 비록 침수세례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립스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스틴 맥게리를 비롯한 재침례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행하는 침례를 침례교회와 같은 타 교단에서 행하는 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싸잡아 비난하였다.
- **20세기 말**에 Churches of Christ에서 갈라져 나온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 (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 ICOC)은 **킵 맥킨** (Kip McKean)이 1983년에 보스턴 오페라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보스턴 운동**’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 그 무렵부터 **킵 맥킨**은 침수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도(discipleship) 개념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동에 새로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 온 신자들한테까지도, 재침례를 받도록 요구했다.
- **킵 맥킨**은 ‘환원을 통한 혁명’(Revolution Through Restoration)이란 글에서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 뜻은 ICOC에서 재교육을 받고 ‘참된 제자’가 된 자들만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ICOC 목사들에게 받은 침례만이 올바르고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오직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마무리

- Alexander Campbell 혹은 David Lipscomb의 침례에 관한 온건한 의견이 주류 Churches of Christ 혹은 주류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입장이다.
- Alexander Campbell과 John Thomas의 논쟁에서 얻은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
- 재침례논쟁을 정리한 논문, “A Brief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Rebaptism Controversy”와 “Lunenburg Letter.”
<https://www.preachinghelp.org/sermons/bapt-out.pdf>
http://kccs.info/LunenburgLetter_English_Korean.pdf